韓國文學論叢 第13輯(1992. 10) pp. 75~92

# 〈海東遺珠〉研究

## -柳下의 편집의식을 중심으로-

韓 泰 文*

目 次

Ⅰ. 序 論
Ⅱ. 柳下의 生涯와 選詩觀
1. 生 涯
2. 選詩觀
Ⅲ. 수록시인을 통해 본 〈海東遺珠〉의 성격
Ⅳ. 要約 및 結論

## Ⅰ. 序 論

조선조 최대의 委巷詩人으로 손꼽히는 柳下 洪世泰(1653~1725)가 편집, 1712년 간행한 〈海東遺珠〉에 대한 관심은 1660년 발간된 〈六家雜詠〉과의 비교에서 비롯된다. 〈六家雜詠〉은 李景奭(1595~1671)이 '六家란 여섯 사람을, 雜詠이란 絶句, 古詩, 律의 長短 등 한결같지 않은 詩體를 일컫는다'라고 序文에서 밝힌것처럼[1] 주로 光海·仁祖년간에 醫·譯官·胥吏 및 禁漏官이던 鄭栢壽·崔奇男·南應琛·鄭禮男·金孝一·崔大立 등 6인이 최기남이 거처

* 부산대학교 국문학과 박사과정

1) 李景奭, 〈六家雜詠〉序, 六家者 六人也 雜詠者 或絶句 或古詩 或律之長短 不一其體之謂也. 朝鮮後期 閭巷文學叢書8, 驪江出版社(이하 叢書라 약칭) 1991. 12. p. 3.

하던 三淸洞을 중심으로 모여 읊었던 시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최초의 委巷漢詩 同人誌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 비해 〈海東遺珠〉는 조선시대 士大夫가 아닌 中人이하 노비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년간에 걸쳐 당대 비교적 詩文으로 이름을 날리던 委巷詩人 48인의 詩, 225題 235首가 수록되어 있는 까닭에 더불어 노니는 무리들과 친화·협력하여야 하고 시대에 대한 인식이 비슷해야 하는 등 공통분모를 많이 공유하게 되는 동인지의 성격을 벗어난 본격적인 委巷漢詩選集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2] 〈六家雜詠〉과의 변별성이 그리 두르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海東遺珠〉에 수록된 시인들의 수록편수가 일정한 비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몇몇 작가에 집중되어 나타남을 엿볼 수 있다. 委巷詩人들이 거의 다 망라되었다고 평가되어지는 이 시집에서 수록 편수가 몇몇 작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編者인 柳下와의 친분·교유관계에 힘 입은 결과가 아닌가 여겨지므로 결국 〈六家雜詠〉의 동인지적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이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필자는 〈海東遺珠〉에 대한 올바른 성격규정을 위하여 우선 편자인 柳下의 생애를 살피고 〈海東遺珠·序〉와 〈柳下集〉(閭巷叢書1)을 토대로 그의 문학관을 살핀 다음 〈海東遺珠〉에 수록된 시인들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그의 편집의도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하며 전반적인 내용분석은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 II. 柳下의 生涯와 選詩觀

### 1. 生　　涯

柳下는 1653년 武官을 지낸 翊夏와 江陵 柳氏 사이에서 태어나 주로 숙종연간을 산 인물로 字는 道長, 號는 滄浪·柳下이고 貫鄕은 南陽이다. 젖니를

2) 李相鑌, '初期委巷詩選集 硏究－〈六家雜詠〉·〈海東遺珠〉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硏究14, 한국한문학연구회, 1991. p. 231.

갈 때부터 말을 잘 했고 조금 자라 제자백가를 통달하였다 하니[3] 그 재능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무려 268명의 雜科 합격자를 배출한 기술직중인의 대표적인 가문인 南陽 洪氏의 7개 派중 가장 미미한 派의 후손이고, 게다가 母系마저 노비로 엄격한 신분제사회에서의 불행한 天才의 출발을 예견케 하는 것이기도 했다.[4]

숙종 元年(1675), 23세에 乙卯式年試 雜科에 응시, 漢學官으로 뽑혀 중국과 교환하던 특수한 관용공문을 처리하는 吏文學官이 되었으나 실제 부임한 것은 46세 때이었으니, 그 생활은 궁핍할 수 밖에 없었다.

| | |
|---|---|
| 집이 가난해서 아비에게 제사드릴 힘도 없는데 | 祭先無力奈家貧 |
| 은비녀 남에게 파는 것을 아까와 않네 | 不惜銀尖賣與人 |
| 내 절로 그대의 정성스런 효도의 뜻 느끼게 되니 | 我自感君誠孝意 |
| 이내 생애 헛되어 장부의 몸만 지녔구나 | 此生虛作丈夫身[5] |

아비의 忌日이 되었는데도 祭需를 마련할 길이 없던 차에 아내가 아무 말없이 은비녀를 팔아 그나마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니 말이 사내대장부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서글픔이 진하게 배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청빈을 과시하려고 떠는 거짓 궁상과는 전혀 다른 실제 현실의 삶이다. 오죽했으면 〈昭代風謠〉의 첫머리에 詩로써 序文을 썼던 高時彦(1671~1734)이 "하늘은 柳下를 내되 어찌 그리 가난하게 내셨는가, 강건한 필체는 이 나라에서 겨룰 자가 없는데"[6]라고 탄식하게 할 정도였겠는가. 어디 가난 뿐이랴? 차라리 가난은 선비로 자처하는 이들의 미덕이 될 수 있지만 대문을 나서더라도 양반사대부들의 車馬와 만나면 짧은

3) 洪世泰, 自序, 〈柳下集〉卷1, 叢書1, p. 141, 余生五歲則知讀書 從塾師 受數卷書 已能通大義 既長讀經史外諸子百家 無不通覽顧

4) 柳下의 家系에 대하여는 姜明官이 〈姓源錄〉(旿晟社, 1985)과 成大中의 〈靑城雜記〉의 기록을 토대로 상세히 밝히고 있다.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1. 9. pp. 77~78을 참조.

5) 〈柳下集〉卷3, 叢書1, p. 195, 「先忌日家貧無以供祭需室人拔頭上銀尖子鬻之感而有作」

6) 高時彦, 書昭代風謠卷首, 〈昭代風謠〉, 叢書8, p. 69, 天生柳下奚蓬蒿 健筆三韓無詰頏

웃이 부끄러워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마는[7] 짧은 옷으로 대변되는 신분적 한계, 열등감은 가난보다 몇 백배 자신을 좌절시킨다. 이 같은 좌절을 그나마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한 것은 바로 최기남의 제자인 林俊元(?～1697)을 중심으로 결성된 洛下詩社 동인으로서의 교유였다. 이 시사는 기술직중인 중 특히 譯官신분의 시인들로 구성되어 柳下는 자신의 詩才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詩名을 떨쳐 당대의 명사들로 부터 韓退之와 柳宗元의 同流로 인정받기도 하고,[8] 高適이나 岑參의 流로 칭송을 받음으로써[9] 위항인으로서의 신분적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겨우 수척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구름을 능멸할 뜻을 머금고서 몸을 창공에 날리는 용이 되고파 평지에 드러눕기 싫어하는[10]'어린 대나무와 같은 웅혼한 기상을 지녔기에 46세로 吏文學官에 부임한 이래 製述官, 屯田長, 通禮院引儀, 西部主簿兼纂修郎, 松羅道察訪, 義盈庫主簿, 蔚山監牧官 등의 벼슬길에 오르게 된다.[11] 하지만 관직에 올라 눈 앞에 가득 쌓인 곡식을 풀어 유랑백성들을 구휼하고 싶으나 자신은 고작 군졸이나 관노비에게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여 군량미를 만드는 둔전장에 지나지 않기에 상사의 법은 중하고 둔관은 약한 존재라 상사의 책망이 두려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기한계를 재차 인식하게 할 뿐이다.[12] 게다가 강보의 아이마저 군적에 올라 있는 웃지 못할 현실과 가정적으로 슬하의 자식 8남2녀의 시신과 형제들의 시신마저 제 손으로 염습해야만 했던 그였기에 그의 노년은 결국 빛 바랜 보검으로 71세의 나이로 주저앉고 만다.

| | |
|---|---|
| 나그네여, 나그네여 자가 도장인 자여 | 有客有客字道長 |
| 스스로 평생에 강개한 뜻 품었다지만 | 自謂平生志慨忼 |

7) 「鹽谷七歌・其七」,〈柳下集〉卷13, 叢書1, p. 376, …朝來出門臨大道 車馬相逢問誰是 短衣怵惕不敢前 歸臥床頭有老子…

8) 趙顯命, 洪世泰墓表,〈歸鹿集〉卷14, …若其傑然特立操戈於韓柳之室者 惟崔簡易一人而已 而翁之詩與之對峙同流 而無愧何其確也…

9) 鄭來僑, 墓誌銘,〈柳下集〉附錄1, p. 396, 息菴金相公見而歎賞曰 高岑者流也.

10) 「嫩竹」, 전게서, 卷2, p. 180. 嫩竹纔數尺 已含凌雲意 騰身欲化龍 不肯臥平地.

11) 李相鎭, 柳下 洪世泰 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5. pp. 27～28.

12) 「屯官行」,〈柳下集〉卷4, p. 208, …今年偶得一屯官 眼前突兀看蓄積 便欲散之爲我惠 坐使流離各安宅 豈無汲默發倉心 直恐難逃上司責 上司法重屯官弱 嗚呼古人吾不若.

| | |
|---|---|
| 만권 책 읽은 게 무슨 소용 | 讀書萬卷何所用 |
| 늙어지매 웅대한 포부 풀더미에 떨어지니 | 遲暮雄圖落草莽 |
| 누가 천리마에게 소금수레 끌게했던가 | 誰教騏驥伏鹽車 |
| 태항산이 높아 올라갈 수 없네 | 太行山高不可上[13] |
| (하략) | |

柳下의 글이나 기타 위항시인들의 시에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 있는 것이 준마가 소금수레를 끄는 하찮은 말로 대치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천리마는 세상을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이 출중함을 드러낸 것이요, 이 능력이 신분의 제약으로 세상에 널리 쓰이지 못함을 개탄한 것인데, 柳下도 당대사회에 대한 불만을 옛 燕나라 昭王이 臺를 쌓고 어진 이를 귀천의 차이없이 초청한 고사를 떠올리며 그러한 세상의 도래를 꿈꾸기도 했지만[14] 당대엔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柳下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제약으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이 좌초하고만 불우한 시대를 살다간 불운한 시인이라 할 수 있다.

## 2. 選詩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를 가려 시집으로 엮어낸다고 할 때, 그 작업은 단순한 시의 수집이나 나열이 아니라 반드시 편집자의 選詩觀이 토대가 될 것은 不問可知의 사실이다. 〈海東遺珠〉 역시 柳下가 단순히 역대 위항문인들의 시들을 수집하여 정리했다고 해석하기 보다 柳下의 문학관과 그 意識의 소산이라고 봄이 옳다. 〈海東遺珠 · 序〉에는 柳下의 편집의식과 아울러 선시관, 문학관이 잘 나타나 있다.

우선 柳下는 자신이 〈海東遺珠〉를 편찬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農巖 金相公이 일찌기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시는 채집되어 세상에 행하게 된 것이 많으나 여항인들의 시만 홀로 빠져 전하지 않아 가히 애석하니

13) 「鹽谷七歌 · 其一」, 〈柳下集〉卷13, p. 375.

14) 「巷東子……於是感歎一絶以和之」, 〈柳下集〉卷3, p. 198, 世間何地木生才 驥服鹽車 只可哀 悵望千秋歌一曲 西風吹落古燕臺.

> 그대가 한 번 채집해 보라"하였다. 내가 이에 널리 수소문해서 諸家의 詩稿를 얻어 모래를 헤쳐 금을 찾듯 자세하고 간략하게 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기에 힘써 그 결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좋은 것들을 수록하지 않음이 없이 10여년 동안 모아 편집하기에 이르렀다.[15]

農巖 金昌協(1651~1708)이 사대부들의 시가 세간에 전하는 반면 위항인들의 시가 기록으로 정리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쉬워 그에게 위항인의 시를 정리하게 했고 그것이 〈海東遺珠〉편집의 動因이라 밝히고 있는 것이다.

農巖은 정인보가 '我東五千唯一人'이라 칭송했던 인물로[16] 허균, 장유 등을 이어 '詩는 性情의 발현이며 天機의 움직임'이라 하여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본성을 긍정하며 개성을 중시하는 '天機論'을 주창했던 문학사상가이자 柳下가 더불어 교유했던 三淵 金昌翕(1653~1722)의 형인 까닭에 서로 알게 되었는데 〈柳下集〉에 「到農巖山居」·「白雲寺奉程農巖」·「奉次農巖觀魚韻」·「四友堂陪農巖話仍次其韻」·「農巖金判書挽」·奉呈農巖」·「哭農巖公靈几退而述感」 등 여러 首의 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비슷한 연배로써 그 교유의 정도가 자못 친밀했음을 엿볼 수 있고, 따라서 그의 사상이나 의식이 柳下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영향의 편린은 〈海東遺珠·序〉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대저 사람은 천지의 中을 얻어 태어나는데, 그 정으로 느끼고 말로 드러낸 것이 시가 되는 즉 귀천없이 하나다. 이런 까닭에 시경 3백 편은 대부분 위항가요의 작품에서 나온 것으로 공자가 취한 것이니 곧「兎罝」·「汝墳」과 「清廟」·「生民」의 篇을 나란히 늘어 놓고 風雅를 처음부터 그 사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이 성인의 지극히 공평한 마음이다.[17]

柳下는 시를 읊조림에 있어 신분의 고하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15) 〈海東遺珠·序〉, 叢書8, p.41, 農巖金相公嘗謂余曰 東詩之採輯行世者多矣 而閭巷之詩 獨闕焉泯滅不傳可惜 子其採輯 余於是 廣加搜索得諸家詩稿 披沙揀金務歸精約至於人所口誦其可者 靡不收錄 而編乃成.

16) 鄭寅普, 〈農巖集〉解題, 景文社, 영인본, 1980.

17) 〈海東遺珠·序〉, 夫人得天地之中以生 而其情之感而發於言者爲詩 則無貴賤一也 是故三百篇多出於里巷歌謠之作 而吾夫子取之 即兎罝汝墳之什與清廟生民之篇 竝列之風雅 而初不係乎其人 則此乃聖人之公之心也.

그 근거로 유학의 종주이신 공자마저 詩經에 「兎罝」·「汝墳」과 「淸廟」·「生民」을 나란히 두어 위항가요를 취하여 교화의 전범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兎罝」·「汝墳」은, 聖王의 감화가 현출시킨 태평성대를 노래한 것이나 실제 내용은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것이 대부분인 〈國風·周南篇〉에 있는 것으로 「兎罝」는 군인들의 武勇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행사 중의 하나였던 사냥에 열중하는 군인들이 나라의 방패임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汝墳」은 전장터에 나간 남편을 나무를 베며 기다리다 마침내 남편을 만난 기쁨을 노래한 戀情歌로써 둘 다 서민의 진솔한 감정을 인위적인 수식없이 담담히 그린 노래들임에 반하여 「淸廟」·「生民」은 「兎罝」·「汝墳」등의 서민의 진솔한 감정과는 무관하다. 「淸廟」는 종묘에 제사지낼 때 연주하던 가사로 壯重·典雅를 특징으로 하는 〈周頌·淸廟之什〉에 속하는것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종묘에 제사지내며 周文王의 공덕을 찬미하는 것이고, 「生民」은 궁중음악으로써 주로 周 聖王들의 사적을 노래하여 교훈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까닭에 소박보다는 세련에, 애정보다는 도의와 정치에 기울어지는 〈大雅·生民之什〉에 속해 있는데, 周의 조상인 后稷의 생애를 노래하면서 하늘의 보호로 태어나고 자란 후직이 농사짓는 법을 발견하고 하늘을 잘 섬긴 설화를 중심으로 한 노래들로써 모두 상층 향유의 노래들이다. 柳下는 이들 작품이 시경에 나란히 실려 있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진정 위대한 문학은 신분고하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사대부들이 그토록 숭앙하던 공자를 끌고 들어옴으로써 성정이 신분의 고하에 따라 다르지 않듯이 위항인들의 시도 결코 사대부들의 시보다 못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다소 我田引水格인 이와 같은 자기합리화의 논리는 다음의 글에선 오히려 위항인들의 시가 사대부들의 시보다 훨씬 뛰어남을 강조하는 것으로 더욱 고조된다.

> 우리나라 문헌의 성함은 中華에 비하여 대등하다. 대게 신분이 높은 사대부가 위에서 한번 부르면 재야의 선비는 아래에서 북을 치고 춤을 추며 歌詩를 지어 스스로 울리었으니 비록 그 배운 것이 넓지 않고 자료를 취한 것이 원대하지 못해도 그것이 하늘에서 얻은 까닭에 스스로 월등히 뛰어났다. 유유한 노랫가락은 唐에 가깝고, 경치를 그려내는 것이 맑고 원만한 것은 그것이 봄날의 새와 같다. 정을 펴내는 것은 그것이 가을의 벌레와 같음인저. 오직 그 느끼어 울게 되는 바는 천기 중에서 자연히 유출되지 아니한 것이

없은 즉 이것을 참다운 시라 일컫는 것이다.[18]

참다운 시를 신분의 문제에 결부시켜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다. 위항시인들은 신분적 제약 등 제반조건의 미비로 배우지 못하여 詩材조차도 원대한 뜻을 취하지 못하지만 天機를 자연 유출하는 데는 오히려 지식이 사물의 본질을 가리는 사대부들 보다 뛰어나 훨씬 훌륭한 시를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그는 이와 같은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예로부터 시를 잘한 사람은 山林·草澤에 많이 나왔으며, 부귀하고 세력있는 자라 해서 반드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까닭에 이를 통해 보면 시는 小技가 아니라 역시 사람까지도 알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19] 柳下의 이러한 문학관은 바로 農巖에게서 보였던 '天機論'으로 압축된다. '天機'는 天性 또는 본래의 眞性, 인간이 하늘로부터 본래 갖추고 태어나는 本然之性인데, 柳下의 생각은 天機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기에 땅의 제도인 신분엔 하등 구애받을 이유가 없고 따라서 위항인들의 시는 본래의 天機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까닭에 훌륭한 시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위항인들이 땅의 제도인 신분의 제약으로 폄하되고 있으니 柳下는 적극적으로 위항시인들의 고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 그러나 나는 유독 사람이 빈천해서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또 志業을 크게 드러내지 못하고 죽은 옛날의 작자를 추모하고 그 사이에 호걸스럽고 재능있는 이들이 있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죽어 묻혀 버리는 것은 더욱 슬펐다.[20]

柳下가 〈海東遺珠〉라 이름한 것은 아마 '滄海遺珠'에서 그 어원을 따온 것같다. '滄海遺珠'란 大海 중에 빠트린 진주 곧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배로

18) 전게서, 吾東文獻之盛比埒中華 蓋自薦紳大夫一倡于上 而草茅衣褐之士鼓舞於下 作爲歌詩 以自鳴 雖其爲學不博取資不遠 而其所得於天者 故自超絶 瀏瀏乎風調近唐 若夫寫景之清圓者其春鳥乎 而抒情之悲切者其秋蟲乎 惟其所以爲感以鳴之者 無非天機中自然 流出 則此所謂眞詩也.

19) 「雪蕉集序」, 〈柳下集〉卷9, p. 308, 自古以來 工詩之士 多出於山林草澤之下 而富貴勢利者 未必能焉 以此觀之 詩固不可小 而其人亦可以知矣.

20) 〈海東遺珠·序〉, 然而余獨惜其人多貧賤汨沒 不能大肆其志業 以追古之作者 而其間往往有豪傑卓異之才 不見知於世 沈抑以死者 尤可悲也.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현인을 비유하는 말로 잘 쓰이는데 결국 柳下는 이를 '海東'으로 대치함으로써 이 나라에 훌륭한 재주는 지니고 있으나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위항인들의 천기에서 우러나온 주옥같은 작품을 후세에 길이길이 전하기 위해 〈海東遺珠〉를 편집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柳下의 文學觀 또는 選詩觀은 한 마디로 '天機論'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대부들의 문학에 대한 위항문학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한 하나의 방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 III. 수록시인을 통해 본 〈海東遺珠〉의 성격

〈六家雜詠〉·〈海東遺珠〉 비교연구의 첫 장을 연 李相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어 〈六家雜詠〉을 편찬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시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1]

> 우리 소인들이 감히 시인의 流가 되겠습니까? 마침 몇 명이 서로 벗을 맺어 거친 문필을 일삼았는데 각기 지은 것이 있어 하나로 합하여 장차 후손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만약 한 말씀 해 주신다면 길이 집안의 보물로 전하겠습니다만 생각컨대 제 분수에 넘치는 듯 하니 어찌 감히 여쭙겠습니까?[22]

곧 표면에 내세운 友道의 실현이니 자손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니 하는 말은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이 논리대로 한다면 〈海東遺珠〉 역시 柳下가 서문에서 밝힌 편집의도와는 다른 것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과연 〈海東遺珠〉는 柳下가 〈序〉에서 밝힌 것처럼 위항인들의 시가 사라지는 것이 애석해서 편집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 필자는 이를 〈海東遺珠〉에 수록되어 있는 작가군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1) 李相鎭, 전게논문, p. 230.

22) 〈六家雜詠·序〉, p. 3. 吾儕小人 敢望詞翰之流 適若而人 相結爲朋 粗事觚墨 各有所著合而一之 將付來雲 如得一言之賜 永爲傳家之寶 顧僭猥何敢焉.

## 1. 身分 및 字, 號

우선 〈海東遺珠〉 소재 위항시인 48인의 신분 등을 살핌으로써 위항한시 선집으로서의 실제적 가치를 살피기로 한다.

| 作家名 | 身分 | 字 | 號 | 作家名 | 身分 | 字 | 號 |
|---|---|---|---|---|---|---|---|
| 朴繼姜 | 商賈 | | 市隱(1470－？) | 石希璞 | 胥吏 | 子成 | 南川 |
| 李　精 | 醫員 | | 杏村(1470년대) | 金振鳴 | | 汝鍾 | 石泉 |
| 鄭　致 | 醫員 | 可遠 | 櫟軒(？－1623) | 崔承太 | 胥吏 | 子紹 | 雪蕉(？－1684) |
| 權　稹 | | | | 鄭希僑 | 譯官 | 惠而 | 鶴洲 |
| 劉希慶 | 祭服匠 | 應吉 | 村隱(1545－1636) | 韓仁偉 | | 士彦 | 藥叟 |
| 白大鵬 | 奴婢 | 萬里 | (？－1592) | 庾重益 | 譯官 | 子善 | |
| 尹繼宗 | 別提 | | | 庾纘洪 | 譯官 | 述夫 | 春谷(1629~1697) |
| 金復性 | | | | 朴孝先 | | 行源 | 黎村 |
| 朱天祿 | 別提 | | | 林俊元 | 胥吏 | 子紹 | 西軒(？－1697) |
| 朴擎南 | | | | 高義厚 | 譯官 | | 醞谷 |
| 金忠信 | | | | 林仁榮 | | | |
| 金孝一 | 禁漏官 | 行源 | | 李汝完 | | 樂全 | 鶴汀 |
| 崔大立 | 譯官 | 秀夫 | 蒼崖·筠潭(？－1660) | 崔元祥 | 胥吏 | 士休 | |
| 崔奇男 | 胥吏 | 英淑 | 龜谷·默軒(1586－1668) | 高後說 | | 弼卿 | |
| 鄭栿壽 | 醫員 | 子久 | 杏村 | 李得元 | 譯官 | 士春 | 竹齋(1638－1682) |
| 鄭愛男 | 胥吏 | 孝順 | | 林得忠 | 武人 | | |
| 金忠烈 | 胥吏 | 而彦 | 玉湖·雪蓬 | 崔東渙 | | 士深 | 月潭 |
| 朴　頴 | 醫員 | | | 嚴義吉 | | 彝仲 | 春圃 |
| 南應琛 | 醫員 | 子貢 | 松坡(1596－？) | 秦興祉 | 譯官 | 天授 | |
| 尹義立 | | 行誼 | 默叟 | 白信明 | 胥吏 | 汝實 | |
| 朴尙立 | | 立之 | 懶齋 | 鄭昌海 | 禁漏官 | 文若 | 愚隱 |
| 朴尙直 | | 子正 | 默齋 | 姜就周 | 賤人 | 汝載 | 鷺洲 |
| 高益吉 | 譯官？ | 慶餘 | | 石萬載 | 胥吏 | 季叟 | 豆村 |
| 梁時賓 | | | | 尹弘璨 | | 仲獻 | |

위의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海東遺珠〉엔 총 위항 48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柳下가 序文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昭代風謠〉등의 찬술형식 등을 토대로 살피면 대체로 시대별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록시인 중 첫머리의 장식이 대체로 1510년대이고 마무리는 柳下가 살았던 시대인 1700년대인 까닭에 수록연대가 무려 2백여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고, 극히 몇 사람을 제외하곤 개인문집을 변변히 가지지 못했던 초기위항시인들의 성격상 그 신분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게 아래로는 私奴에서 부터 商人·武人·譯官·醫員·禁漏官·胥吏·祭服匠 등 사대부계층을 제외한 중인이하의 여러 신분계층을 두루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연구성과처럼 최초의 委巷漢詩選集이라 볼 수 있으나, 앞서 典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동인지의 성격을 띤 〈六家雜詠〉에 수록된 대시인들의 시와 그외 이름을 드날렸던 초기위항시인들의 시를 빠트리고 있는 데서 단순히 그렇게만 가치평가를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의 검증을 위해 〈海東遺珠〉에 수록된 시인들의 상호관계를 살피기로 한다.

## 2. 詩人 상호관계 연구

### 2.1. 酬唱詩를 통해 본 교유관계

'酬唱詩'란 시인들이 詩歌를 불러 서로 주고 받는 것을 일컫는데 이와 같은 풍습은 예로부터 풍류를 아는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라 여겼으며, 비록 시대가 다르거나 또는 사는 지역이 달라 面前에서 대할 순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시를 익혀 바로 贈答함을 서로의 자랑으로 여겨 왔다.

동인지의 성격을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海東遺珠〉에 수록된 시인 사이에 서로 酬唱하거나 그 교유관계를 보이는 시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호 교유를 일단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鄭　致→白大鵬：「對酒招白萬里」
- 金孝一→崔大立：「碧霞潭次秀夫韻」, 崔承太：「送雪上人南遊」
- 崔大立→崔奇男：「送崔英淑遊湖右」·「文殊寺次龜谷子韻」, 林俊元：「子紹示余 以所贈 鄭生惠而放歌行一篇 悲鬱可哀 作此以答之」
- 崔奇男→庾纘洪：「移家用庾述夫韻」
- 金忠烈→崔奇男：「同龜谷子遊三清洞」·「懷龜谷子」
- 崔承太→庾纘洪：「送庾述夫韻」, 李得元：「送李子春赴南兵營」, 朴孝先：「題朴行源家山水障子」, 洪世泰：「次洪道長朴淵韻」
- 庾纘洪→李得元：「子春葬日獨坐感懷」·「懷子春」, 洪世泰：「寄洪道長」
  崔承太：「送崔子紹赴燕」
- 林俊元→庾纘洪：「東郊雨夜與春谷同賦」洪世泰：「與洪道長遊白川江西寺」「宿道長溪亭」
- 李得元→林俊元：「嶺南旅舍逢林子紹夜話」
- 嚴義吉→庾纘洪：「哭春翁墓」

235수의 수록시 가운데 수록시인간의 酬唱詩가 무려 22首나 보인다. '酬唱詩'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海東遺珠〉에 시인개인별 수록 편수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며, 이들 대부분이 직접, 간접적으로 柳下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임을 고찰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이들 가운데 金孝一·崔大立·金忠烈은 柳下가 직접 훈도를 받은 적은 없지만 '洛下詩社' 전체가 스승으로 모셨던 崔奇男의 친구요, 崔承太·李得元·庾纘洪·林俊元 등은 바로 '洛下詩社'를 주도했던 柳下의 절친한 벗으로 특히 최기남의 아들 최승태와는 莫逆之友로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처럼 柳下가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이들의 시를 집중수록하였음은 〈六家雜詠〉과의 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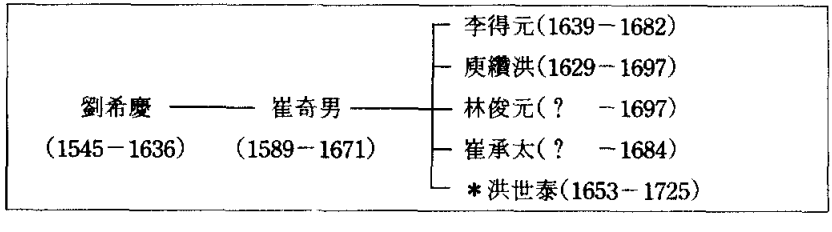
| 作 家 | 〈六家雜詠〉 수록 詩 | 〈海東遺珠〉에 수록된 詩 | | |
|---|---|---|---|---|
| | | 〈六家雜詠〉에서 재수록된 詩 | 새로 첨가된 詩 | 計 |
| 鄭栢壽 | 51 | 1 | 0 | 1 |
| 崔奇男 | 53 | 5 | 30 | 35 |
| 南應琛 | 43 | 1 | 0 | 1 |
| 鄭禮男 | 21 | 0 | 0 | 0 |
| 金孝一 | 41 | 9 | 5 | 14 |
| 崔大立 | 51 | 17 | 10 | 27 |
| 計 | 260 | 33 | 45 | 78 |

〈海東遺珠〉에 수록된 詩 중 33首가 〈六家雜詠〉에서 재수록한 시고, 45首가 柳下에 의해 새로 첨가 수록된 시다. 〈海東遺珠〉에 무려 78수의 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柳下 역시 〈六家雜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選詩과정 및 수록과정에 있어 柳下를 비롯한 洛下詩社 동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시인들의 시는 새로 발굴하여서라도 많이 실은 반면(최기남·최대립·김효일), 그렇지 못한 이들은 거의 실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海東遺珠〉는 비록 동인지의 성격을 띤 〈六家雜詠〉보다 훨씬 많은 이들의 시를 담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洛下詩社의 동인들과 친분관계를 가진 시인들의 시를 집중수록함으로써 동인지의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여겨진다.

2.2. 師弟관계의 詩人群

〈海東遺珠〉에 수록된 시인들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사제관계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명확히 보여 주는 것은 劉希慶을 중심으로 한 師承關係이다.



村隱 劉希慶은 당대 白大鵬과 더불어 최고의 위항시인으로 손꼽혔던 인물로 자신이 거처하던 곳에 臺를 쌓고 巢由와 같이 세간의 명리명분을 떠나 산수의 아름다운 경치속에서 고결한 넋을 기르며 은둔하는 생활을 흠모하여 '枕流臺詩社'를 결성한 맹주인데, 壬亂으로 구성원들이 거의 사멸하여 詩社의 지속이 어려워지자 나이는 자기보다 41세나 아래지만 당시 詩名을 떨치고 있던 龜谷 崔奇男을 영입함으로써 시사의 부흥을 꾀한 결과 이들은 자연스레 사제관계가 맺어졌다.[23] 이후, 村隱의 후광과 천부적 자질을 겸한 최기남이 村隱의 死後 자신이 거처하던 三淸洞을 중심으로 '三淸洞詩社'를 이끌어 나가면서[24] 소위 동인들의 시집인 〈六家雜詠〉이 이루어지고 이후 최기남의 본격적인 훈도에 의해 林俊元을 중심으로 하는 '洛下詩社'로의 명맥이 이어지게 된다.

위의 도표에 나타난 이득원, 임준원, 유찬홍은 直弟子라 할 수 있으나 柳下의 경우는 그 生沒年代 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直弟子라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 역시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枕流臺詩社'의 일원이 된 최기남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임준원 등과 교유하다 보니 그 역시 최기남에게 배운 적은 없지만 그를 스승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25] 그래서 실제 柳下는 崔奇男의 詩 뿐만 아니라 同人들의 詩를 평균 4수 이상 두드러지게 실었을 뿐 아니라 생전 보지도 못했던 村隱에 대해 〈劉村隱墓誌銘〉를 남기기도 했던 것이다.[26]

이와 같이 柳下가 생전 보지도 못한 村隱에 대한 숭모의 정을 가지고 그 사승관계에 있는 이들의 詩를 대거 수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를 柳下의 의도적 행위로 보고자 한다. 곧 柳下는 흔히 儒學의 道統을 질서있게 정리함으로써 체계성과 그 학문 授受傳承의 깊은 연원을 과시하곤 했던 사대부들의 學脈을 염두에 두고서 위항시인들의 詩도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사제관계로 수수전승하여 그 脈을 이어왔고 그 脈을 자신을

23) 韓泰文, 枕流臺詩社 結成에 대한 試攷, 韓國文學論叢12, 韓國文學會, 1991. 11. p. 88.
24) 三淸洞詩社에 대하여는 허경진, 三淸詩社와 〈六家雜詠〉(한국학보5집, 일지사, 1988. 겨울)을 참조할 것.
25) 〈柳下集〉, 卷2, p. 175.「澄懷閣對雪和主人用龜谷韻」.
26) 〈柳下集〉, 卷10, p. 328.

비롯한 洛下詩社의 同人들이 잇고 있다는 자부심을 보이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3. 親族關係의 詩人群

앞에서 〈海東遺珠〉가 師弟關係에 있는 이의 詩를 의도적으로 많이 담았다고 한것처럼 親族關係에 있는 詩人群도 많이 발견됨이 특징이다.[27]

| | | | |
|---|---|---|---|
| ●朴擎南(父) | 朴尙立(子)<br>朴尙直(子)<br>高義厚(外孫) | ●崔奇男(父) | 崔承太(子)<br>白信明(外孫) |
| ●鄭 致(父) | 鄭栢壽(子) | ●庾重益(兄) | 庾纘洪(弟) |
| ●石希璞(父) | 石萬載(子) | ●高益吉(父) | 高後說(子) |

筆者의 短見으로 발견되는 親族群만 해도 6개, 15人으로 전체인원의 32%나 된다. 이는 달리 말해 현재 기존 작품외엔 일말의 기록조차 신원을 밝힐 수 없는 나머지 시인 상호간에 대한 자료가 앞으로 더욱 많이 발견될 경우 親族詩人群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柳下가 이들이 가족,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록하였을 리는 없다. 〈六家雜詠〉에 수록된 대시인들의 시까지 과감히 배제해버린 柳下가 오히려 그 명성에 있어 다소 처지는 감이 있더라도 친족관계에 있는 이들의 시를 많이 수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 역시 柳下가 〈海東遺珠·序〉에서 밝힌 바 있는 곧 위항인들의 시가 사대부 시보다 적어도 대등하거나 월등히 나음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보고자 한다. 즉, 일반적으로 家門의 代를 이어가며 文才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 당대 사대부들의 자랑거리였는데 이제 우리 위항인들도 사대부들의 가문의식 못지않게 대를 이어가며 그것도 物慾에 어둡지 않고 天機를 마음껏 발산하며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다는 은연 중의 과시가 아닐까?

27) 여기서 '親族'이란 배우자, 혈통의 관계가 있는 겨레붙이인 血族,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인 姻戚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2. 2. 15. p. 4198.)

지나친 확대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위항인의 문학이 사대부 전반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던 당대에 위항시인들의 주옥같은 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십여 년의 기간동안 가리고 가려 〈海東遺珠〉라는 위항시집을 편집한 柳下의 의식을 고려한다면 그리 지나친 의미부여는 아닌 것 같다.

또 한편으로 柳下가 이들 친족관계에 있는 시인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의 각별함이 은연중 드러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柳下의 스승뻘이라 할 수 있는 최기남친족의 시가 무려 60수가 되고, 나이가 무려 25세나 차이가 나지만 나이를 잊고 자신을 '小友'로 대접할 정도로 절친했기에 마침내 그가 죽자 「庾述夫傳」[28] 까지 柳下가 직접 지었던 유찬홍 가족의 詩 역시 22수나 되기 때문이다.

## Ⅳ. 要約 및 結論

이상으로 〈海東遺珠〉의 올바른 성격 구명을 위한 選詩觀과 編輯意識 등을 살펴 보았다. 일반적으로 〈海東遺珠〉는 다양한 신분의 많은 위항인의 시를 담고 있는 까닭에 이제까지 면밀한 검토없이 명확히 6인으로 한정된 〈六家雜詠〉이라는 同人誌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동인지의 성격을 벗어난 최초의 委巷漢詩選集으로 평가되어져 왔는데, 기존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견해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海東遺珠·序〉에 나타난 글의 내용으로 보아 표면적으로 柳下는 신분의 미천함으로 인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아 빠트려진 天機에서 우러나온 아름다운 위항인의 시를 전할 목적으로 〈海東遺珠〉를 편집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다 심층적인 편집의식을 살피기 위해 〈海東遺珠〉 소재 시인들에 대한 상호대비의 결과, 일단 私奴에서 胥吏까지 사대부를 제외한 중인이하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詩選集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자신과 친분이

28) 「庾述夫傳」, 〈柳下集〉卷9, p. 318. 余生後述夫二十五歲 述夫不以凡夫視我 每於廣坐酒樂 雖平生所親識 無不語困之者 獨不及於余.

있는 이들의 시는 대폭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의 시는 배제함으로써 형평의 객관성을 상실해버려 일반적으로 定說視되던 〈六家雜詠〉의 동인지적 성격에서 과히 벗어나지 못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海東遺珠〉는 이와 같이 동인지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긴 무리가 있지만,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첫째, 柳下가 序文에서 위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체의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본성을 긍정하며 개성을 중시하는 '天機論'을 중심으로 뚜렷한 위항문학관을 정립함으로써 위항문학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

둘째, 많은 특성을 共有하는 同人誌의 성격을 벗어나고자 시대적으로 2백여년의 세월을 담고 그 신분층도 중인이하의 여러 계층을 모두 아울렀다는 점,

셋째, 수록에 있어 柳下와의 편향적 의식지향(친분관계)을 드러내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親族詩人群과 師弟關係詩人群의 詩를 집중수록함으로써 위항인들도 사대부 못지 않게 代를 이어 文才를 발휘할 수 있고, 委巷詩의 創作이 단순한 소일거리로서의 일시적 유흥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사대부들의 學脈처럼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으며, 이젠 자신들이 그 脈을 잇고 있다는 위항인의 자부심을 고양하고자 한 점이다.